

	<h1>보도자료</h1>	2022. 1. 21. (금) 즉시배포
	담당처 :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산하 청년특보단 담당 : 신한창 팀장(010-9254-3286) / 최준호 (010-8442-1091)	

이재명 후보 청년특보단, ‘청년 예비군(軍)’ 간담회 개최

- 군대 내 의료시스템 개선, 예비군 수당 확대 등 군(軍) 복지 정책제안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직속 청년특보단이 ‘예비군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20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예비군 간담회에는 전용기 국회의원(총괄 청년특보단장)이 참석하여 병영생활, 전역자에 대한 대우, 군 전반적인 병영문화 등에 대한 예비군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특히 선대위에서 ‘장병복지 5대 공약 발표’ 이후 이어진 간담회이기에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 다수는 군대에서 질병 및 상해로 진료를 받으려고 할 때 발생 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참석자는 “이른바 ‘부를 땀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 이라고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군(軍)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믿음이 깨지고 있다” 라며 군대 내 의료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다른 참석자는 ‘예비군 훈련을 참가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 발표를 후배에게 맡겨 큰 낭패를 봤다’ 는 사례를 언급하고, “예비군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면 범법자가 될 정도로 엄격한데, 정작 일을 포기하고 참가한 청년들에게 주는 수당은 낮다” 며 예비군 참여수당 확대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선대위 청년특보단장인 전용기 국회의원은 “군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개선과 전역한 청년들에 대한 대우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문제다” 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군장병들과 전역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군대 내 의료시스템 개선과 예비군 수당 확대 등 제안하신 정책은 잘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향후 청년특보단은 병영문화 및 전역자에 대한 예우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견 수렴과 이에 맞는 공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끝)

[첨부] 행사사진

